

세양선박

종업원 1인당 매출액실적 1위

세양선박(회장 임병석)은 2005년 상반기 국내 상장법인들중 종업원 1인당 매출액 5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장법인 572개사중 520개사를 대상으로 '2005년도 상반기 종업원 수와 종업원 1인당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업체 상반기실적을 종업원수로 나눈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은 세양선박이 50억8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1인당 순이익에서도 세양선박이 2억300만원으로 상장사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SK해운

상반기 영업이익 607억원

SK해운(대표 이정화)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607억원으로 전년동기 영업이익 811억원보다 2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해운의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7673억원으로 이중 벙커링영업수익만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가운데 해운부문의 매출액은 6,174억원으로 전년동기 6,617억원보다 6.7% 감소했으며 물류사업부문도 1억원으로 전년동기 37억원보다 97.3% 감소했다.

경상이익은 580억원으로 전년동기 1051억원보다 44.8%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21억원으로 전년동기 739억원보다 56.6% 감소했다.

GS칼텍스,

2009년 군산터미널 건설완료

GS칼텍스(회장 허동수)는 종합에너지리더사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LNG 500만톤을 직도입한다.

GS칼텍스에 따르면 오는 2009년까지 군산에 LNG터미널을 완공, 200만t의 자가소비용 LNG를 직도입하고 2010년에는 이를 500만t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정유사업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LNG직도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09년 완공을 목표로 LNG터미널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종합에너지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LNG 직도입을 적극 추진해 고객에게 청정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가 직도입하는 LNG는 GS파워 등 발전 자회사에 공급, 청정연료를 사용한 전력생산에 이용된다.

또 여수공장의 전기와 열공급 뿐만 아니라 공정용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했던 연료(벙커C유)를 LNG로 대체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기업 경영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07년말 완공될 중질유분해시설인 하이드로크래커(HOU, 수소첨가분해시설)에 첨가할 수소제조에도 사용된다.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이와 관련 "현재 여수공장 발전용연료를 벙커C유를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친환경적 연료인 LNG로 변환할 계획이며 새로 추진되는 중질유분해시설에 투입할 수소제조에도 LNG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직도입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여수공장에 약 9천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HOU설비는 촉매제로 다량의 수소가 필요하며 그동안 수소의 경우 나프타를 통해 제조했지만 지금은 LNG를 통해 생산을 한다.

한편, GS칼텍스는 지난 2004년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자가소비용(비상업용) LNG 직도입 승인을 바 있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LNG 저장시설, 터미널 건립 등 가스공급설비 공사계획을 수립, 산자부의 최종 허가 등의 절차를 받으면 LNG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GS칼텍스는 군산 군장단지 24만평 부지 내에 LNG직도입 추진을 위한 기본 설계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지난 1월 LNG 생산기지 건설을 위해 LG전자(33만8천579m²)와 LG산전(45만7천792m²)에서 보유하고 있던 전북 군산시 군장단지내 부지(79만6천371m², 약 24만평) 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주)한진

칭다오에 물류현지법인 설립

(주)한진(대표 이원영)은 중국 칭다오에 물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9월2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칭다오법인은 (주)한진이 중국 내 설립하는 첫 현지법인이다. (주)한진은 칭다오법인 설립을 발판삼아 앞으로 3년 안에 상하이, 다롄, 톈진 등 10여 개 지역에 지점을 설립할 계획이다.

(주)한진이 중국 칭다오에 설립한 합자법인은 자본금 미화 244만 달러(중국 2,000만 위안) 규모로, 합자법인명은 '칭다오한진육해국제물류유한공사(한진육해)'이며, 지분은 (주)한진과 칭도교운육해국제화운주식유한공사 측이 각각 75%와



25% 갖게 된다.

(주)한진은 산동성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 현지 영업 강화와 파트너사를 통한 중국계 화주들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 아래 사업진출 원년에는 매출 8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차에는 연간 420억원, 10년 후에는 815억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천경해운

부산-상해간에 Ningbo 추가

천경해운(대표 김지수)이 9월14일부터 부산-상해간 스케줄에 Ningbo항을 추가한다.

천경해운은 주 1항차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상해-일본으로 가는 스케줄에 9월14일부터 Ningbo를 추가해 화주들에게 다양한 중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중국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태영상선

RCL 고객초청 감사행사

태영상선(대표 박영안)이 국내 대리점업무로 맡고 있는 태국 국적선사 RCL은 지난 9월2일 한강유람선 한리버랜드사의 올림픽 1호에서 100여



명의 고객 및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RCL 고객 초청 감사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RCL본사에서 콰팩롱 회장과 수메이트 탄투와닛 사장, 테오 티 히엔 부사장등 5명의 임원이 직접 참석해 한국의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는 탄투와닛 본사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부산항만공사 추준석 사장, 바신 테라찬 주한태국대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탄투와닛 RCL 본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RCL은 한국을 동북아시아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인 삼성, LG, 현대, 대우, 효성 등의 세계적인 제품들은 각각의 업계에서 세계적인 기준과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공연에선 총대리점인 태영상선의 RCL 담당 직원들이 직접 갈고닦은 노래와 이벤트로 참석자들을 즐겁게 함으로서 행사 분위기를 돋우었다. 특히 한달여간의 준비를 거쳐 연주한 사물놀이 공연은 짧은 준비기간에도 멋진 실력을 보여줘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 태국인으로 구성된 무용수들이 특별 초청돼 태국의 전통무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했다.

PSA는 현재 벨기에 앤트워프 Deurganck Dock에 1, 2단계에 걸쳐 총 8개 선석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중 2개 선석을 올해 11월까지, 나머지 3개 선석을 200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앞으로 3개사와 공동으로 2007년 말까지 완공되는 5개 선석 중 1개 선석을 전용 터미널로 운영하게 되며 일정 수준 이상 취급 물량이 증가하면 추가로 선석을 확보해 터미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옵션 행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앤트워프 전용 터미널은 4만1,000평의 면적에 3기의 갠트리 크레인을 포함해 21기의 터미널 하역 장비를 갖춰 연간 약 50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게 된다.

한편 한진해운은 이번에 앤트워프항에 전용 터미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베네룩스를 포함한 유럽 지역의 터미널 운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수기 화물 적체 현상을 보이는 유럽지역에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진해운의 전 직원들이 최근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정신신체 장애인 보호 시설인 겨자씨 마을을 방문한 한진해운 직원 19

한진해운

앤트워프항 전용터미널 확보

한진해운이 일본 K-Line, 대만 Yang Ming Line과 공동으로 벨기에 앤트워프항에 전용터미널을 확보했다.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은 K-Line, 양명과 공동으로 8월 31일 오전 9시 네덜란드 앤트워프에서 싱가포르 PSA와 '앤트워프 인터내셔널 터미널(Antwerp International Terminal : AIT)'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명은 주택 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나르고, 터를 닦는 기초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 창립 기념 문화제 일환으로 실시된 릴레이 봉사활동은 각 팀 별로 매월 2회씩 꾸준히 복지시설을 방문해 도움을 전하고 있다.

이번 봉사 활동에 참가해 주택 보수 활동을 한 IT 기획팀 박철완 사원은 “아이들의 모습이 순수해서 보기 좋았다”며 하루 빨리 이쁜 집이 지어져 아이들이 편하게 생활했으면 한다고 했다.

금번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는 전용선팀 임희창 대리는 “팀 단위의 단합된 모습을 보니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 더 많다”며 앞으로 남은 봉사활동에 더욱 힘을 싣겠다고 했다.

한진해운은 2004년부터 사내 봉사 동아리인 ‘이웃 사랑’을 통해 헌혈증 전달, 장애우 터미널 견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대상선 전략적 제휴 강화

현대상선(hmm21.com)은 APL(미국), MOL(일본)과 함께 맺고 있는 전략적 제휴그룹 ‘뉴 월드 얼라이언스(The New World Alliance, 이하 TNWA)’ 계약을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현대상선의 노정익 사장과, APL 데이비드 림(David Lim) 사장, MOL 아키히쓰 아시다(Akimitsu Ashida) 사장은 9일 계약 연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세계 해운업계를 이끌고 있는 한·미·일의 대표적인 해운회사가 참여하는 TNWA

는 1998년 처음 결성되어 2012년까지 추가로 제휴관계를 연장하게 된 것이다.

현대상선 측은 “이번 계약 연장은 세 선사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각 사의 고객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사 공동으로 중장기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TNWA는 전략적 제휴그룹을 결성한 이후 오랫동안 아시아-북미간 항로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도권을 잡아왔으며, 최근 아시아-유럽간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대서양(유럽-북미동안) 항로에서도 영업을 강화해왔다.

현대상선 측은 “현대상선은 지난 8년간 APL, MOL 등 세계 유수 해운회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유지하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해운시장에서 명성과 신뢰를 쌓아왔다”며, 이번 계약 연장을 통해 3사는 화주만족도 증진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망 구축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사 공동으로 신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최적의 투자환경 수립, 신조선대 투입항로의 효율성 확보, 터미널 및 내륙운송 합리화를 통하여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로 화주의 이익 극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NWA는 아시아-북미서안 간에서 9개 서비스





(SAX, PS1, PS2, PS3, GCX, PSX, PSW, PCX, PNW)과 파나마를 경유하는 아시아-북미 동안 간에 2개(NYX, APX)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구주항로에서는 지난 해 중반 중국과 유럽을 서비스하는 신규 노선을 개설함으로써 현재 아시아-유럽간에서 4개 서비스(AEX, JEX, CEX, SCX)와 더불어 대서양 항로에서 3개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편, TNWA는 1998년 처음으로 동맹 계약을 체결한 이래 주요 기간 항로에서 100여 척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신항 입주기업 선정공고

부산항만공사(사장 추준석)는 8월31일 신항 배후물류단지 내 입주할 입주기업 선정 공고를 발표했다.

금번 공고는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한 북컨테이너 배후물류부지를 해양부와 BPA가 공동 매입하여 우선 1단계로 조성되는 2만평에 대하여 1만평은 복합물류부지로, 나머지(6,400평)는 부두운영에 필요한 CFS(컨테이너 화물조작장)로 운영할 입주업체 선정을 위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들어 중국항만들이 급속한 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데다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따른 부산항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금번 신항 배후물류단지 내 입주업체 조기 선정을 통해 부산항을 부가가치 창출 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물류부지 및 CFS를 운영코자 하는 입주시청인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CFS 운영업체는 금년 10월, 물류부지 입주업체는 11월경 각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첫 입주기업이 된다.

한편 CFS 건립공사는 지난 8월12일-19일까지 입찰공고를 거쳐 8월23일 적격심사를 마쳤으며 9월초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조성되는 부지 12만 8천평에 대해서도 금년 중으로 입주업체 선정 공고를 할 계획이며, 2010년까지 총 37만평의 물류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2011년 이후 배후물류부지는 용동지구(195만평)를 개발하여 제공될 예정이며 남컨 배후부지 45만평도 남컨 부두 일정에 맞춰 속속 개발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120만TEU달성 결의대회

인천항만공사(사장 서정호)가 주관한 인천항 120만TEU 달성 결의대회가 9월2일 인천항 갑문 공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항만업계 현장 종사자들의 각오를 담은 영상물 '우리의 다짐' 상영과 안재형-자오즈민 홍보대사 위촉식, 합의



문 발표 및 목표 달성 선포식의 순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사진설명)서정호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안재형-자오즈민 홍보대사 등 항만 관계자들이 이날 갑문에서 열린 120만TEU 달성 결의대회에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



한국도선사협회

도선선 모델개발 중간보고회

한국도선사협회(회장 이경화)는 9월2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는 정부관계자 및 관련 업·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선업무에 적합한 도선선 모델개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협회 이경화 회장을 비롯하여 조수린, 최덕교(인천), 강을규(부산), 이 형(여수), 윤병원(평택) 도선사가 참석하였다.

우리나라 항만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도선 수요에 부응하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도선선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도선선(Pilot Boat)에 관한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연구이다.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외항선 출입항 척수 증가 및 규모 증대에 따른 도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선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모델 1형은 운항거리 30마일, 총톤수 17톤, 전장 16.50m, 등록장 15.92m, 수선간장 14.80m, 너비 3.90m, 깊이 2.00m, 주기관 출력 800PS 1대, 추진방식 1기 1축, 추진기 FPP, 최고속력 22.0노트의 제원으로 나타났다. 모델 2형은 운항거리 95마일, 총톤수 29톤, 전장 22.50m, 등록장 21.18m, 수선간장 19.52m, 너비 4.50m,

깊이 2.00m, 주기관 출력 600PS 2대, 추진방식 2기 2축, 추진기 FPP, 최고속력 20.0노트의 제원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3형은 운항거리 30마일, 총톤수 11톤, 전장 14.20m, 주기관 출력 650PS 1대, 추진방식 1기 1축, 추진기 FPP, 최고속력 25.0노트의 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 선박기술협회는 우리 항만 실정에 적합한 도선선의 적정규모를 최대 29톤으로 산출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발표함으로써 도선이용자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대형 도선선 건조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사재단(재)에서 발주하여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연구의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는 11월20경에 보고될 예정이다

한국물류정보통신

고객초청간담회 성황리 개최

세계적인 물류IT전문기업을 지향하는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 대표 박정찬)은 지난 9월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을 비롯한 해운항만업계 주요인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해운 최영후 사장, (주)동방



김진곤 사장, 장금상선(주) 정태순 사장, 범주해운(주) 이상복 사장,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정기현 사장, 신양선박대행사 김혜숙 사장 등 해운항만업계 사장 및 동남아해운, 한진해운, 흥아해운(주), 대한통운, 세방기업, 범한중합물류주식회사의 임원 등 해운항만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정천 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고객중심경영을 선언하고, “고객들의 질책과 조언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주 부사장이 KL-Net 사업현황 보고를 통해 KL-Net의 VISION 2020과 항만물류통합정보시스템(PLISM), 전자세금계산서서비스(LogisBill) 등 신규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만찬시간에서는 해운항만업계 주요 고객 인사들의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제기됐으며, KL-Net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제7기 P&I School 개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Club, 대표 이윤재)은 제7기 P&I School을 개설했다.

제7기 P&I School은 9월7일부터 11월2일까지 매주 수요일(13:30-18:30) Korea P&I Club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해운회사 보험담당자 및 보험법제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업계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상보험이론 기초/보험시장 구조 △ Loss Prevention/선박구조/해상근무 △충돌 및 유류오염사고, 접촉사고 (FFO), 화물사고, 인명

사고 등과 관련된 Claim 처리절차 △관계법령, 관련보험의 처리 △Case Study 중심의 알기쉬운 해사판례 해설 등을 강의한다.

Korea P&I Club은 지난 2004년 3월에 처음으로 P&I School을 개설한 이후 지난 6기까지 약 60여명이 수강하였으며, 점차적으로 P&I뿐 아니라 해사관련법령, 보험, 클레임관련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성과관리시스템 워크샵 개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은 9월5일, 6일 양일간 경기도 청평의 한바다연수원에서 성공적인 성과관리시스템(BSC) 구축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박재영 이사장 등 조합 임·직원과 BSC 시스템 구축업체인 (주)넉클 최형섭 이사 등 총 36명이 참가하였으며, 방제조합의 미션과 비전 등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워크샵 첫째 날은 BSC 시스템 전문가의 강의와 4개 분임별 토론을 통해 방제조합의 미션과 비전의 초안을 마련한 후 강평과 종합 토론을 거쳐 확정했으며, 둘째 날은 미션과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과제 및 목표를 도출했다.

조합은 성공적인 BSC 시스템 구축을 위해 향후 총 6회의 워크샵을 추가로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BSC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대 효과로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다시 세우고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 중심의 성과주의 문화가 활성화돼 경영성도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